

2009.10. 1.종교신학

강의 : 정재현

기록 : 민경찬

지난 2주간 살폈던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글을 통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종교간의 관계 유형 중 배타주의에 관하여 다루었던 논의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복음주의유형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핵심주장으로 지니며, 이를 기초로, 2000년 전 그날, 그곳에서 그렇게 태어나, 죽고, 경전을 통해 근거지워진 예수에서 출발해 보편성을 향하는 구도를 지녔다.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가 되는 것은 "잠정적인 차원", 즉 우리에게 지상과업으로 남겨졌다. 유일성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특수성이 전제며, 보편성은 역사의 종말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별적 당위에서의 역사적인 특수성에서 잠재적인 범역사적인 보편성으로 나아가 감, 이렇게 배타주의 유형의 핵심주장과 논의전개를 읽을 수 있겠다.

오늘부터 세 시간 동안 종교 간 관계유형 중 포괄주의를 다룬다. 슈바이처, 트릴취, 라너 세 사람의 텍스트를 살피는데, 이들은 각기 나름대로 독특한 포괄주의의 면모를 보인다. 슈바이처, 트릴취, 라너 순으로 살피는 것은 연대기적으로도 맞지만, 포괄주의라는 틀 안에서 일련의 변화과정, 진화과정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포괄주의라는 범주 아래 묶이지만, 이 세 사람의 논의는 어느 정도 위상의 차이가 있다. 세 사람을 놓고 각각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며,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하는지를 살펴보자. 또한 각 세 사람의 주장을 명제 단위로 추리면서 관계구도, 초점, 주장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자. 포괄주의의 면모를 보이는 가운데 슈바이처를 특징짓는 어휘는 무엇일까 찾아보자. 슈바이처의 논의 중 핵심어휘들을 찾아 정리하면 트릴취와 라너와 어떠한 면에서 다른지를 가늠할 수 있으며, 훨씬 더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은 준비된 발제를 나누고, 토론을 통해 보충하도록 하자.

<발제>

이 글은 꽤 길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동양 종교를 중심으로 다른 종교들-인도종교, 중국종교, 중동종교-을 다루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2대 종교-세계 3대 종교하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지만 인구로 보면 불교가 이슬람교에 밀린다- 중 하나인 이슬람교에 대한 슈바이처의 견해다. 슈바이처는 이슬람교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내비치고 있는가?

"기독교는 이슬람교와도 정신적으로 논쟁해서는 안됩니다. 이슬람교는 A.D 7세기경 부분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 이념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떠한 정신적 독창성도 갖고 있지 않으며 신과 세계에 대한 깊은 사유가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유가 깊거나 독창성이 없으니 논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시킨다. 그러고서는 바라문교, 조로아스터교, 중국종교들, 불교, 도교를 살피고 있다. 기독교를 먼저 놓고, 여러 종교들 중 하나를 끌고와 대비시키고, 또 다시 다른 종교를 놓고 와 기독교와 대비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시키고 있는가? 다음 문장을 보라.

“고등종교들 안에는 종교의 본질이라 규정될 수 있는 세 가지 구별들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는 낙관주의와 염세주의의 차이이며, 다른 하나는 일원론과 이원론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인 동기들이 현존하고 있는 강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별을 제시한 후 슈바이처는 각 종교들을 나눈다. 이를테면 중국종교들은 낙관주의적이고 인도종교는 염세주의적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눈 후 기독교를 어떻게 자리매김시키고 있는가? 기독교는 둘 모두를 다 지니고 있다는 식이다. 낙관주의, 염세주의라는 준거로 봤을 때 어느 종교든 한 쪽에 위치하지만 기독교는 이런저런 요소를 다 지니고 있다. 대조적인 양 향이 있는데, 기독교는 양 향 사이에 있거나, 그 모두를 싸안고 있다. 그렇다면 저 양 향들은 기독교 체계 내에서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가?

“세계와 윤리적 인격신 사이의 대립 속에 그리고 이와 함께 주어진 염세주의와 낙관주의 사이의 본질적인 긴장 속에 예수 종교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불일치성 속에 예수 종교의 크기와 진리와 깊이,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종교는 통일적이고 일관된 염세주의가 아니라, 염세주의와 낙관주의의 한 가운데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종교적 세계관은 통일적인 것이 아닙니다.”

“통일”이 아니다. 양 향들 가운데 있거나, 양 향들이 함께 있지만 그것들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부조화”로 있으며, “긴장”을 이루고 있다. 나중에는 이를 “모순”이라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숙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현대 이 “모순”이나 “미숙함”은 논리적인 미숙함이 아니다. 이렇게 까지 논의를 개진하는데는 당연히, 또 다른 의도가 있다.

“...기독교는 자기가 논리적으로 폐쇄적인 인식이 되는 것을 단념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기독교가 몸 담고 있는 모순들과 미숙함이 논리적 오류가 아니라 사물의 깊이로 들어가기 위한 사유의 불가피한 불안전성...”

단 한번도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결국 기독교는 그러한 방식으로 타 종교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고 싶은거다. 기독교가 지닌 “미숙함” “모순”은 “사물의 깊이”, ‘있음’앞에서 ‘없’이 지닌 한계를 보여줄 뿐이며, ‘있음’과 ‘없’이 생겨먹은 구조가 그렇기에 기독교의 “미숙함”은 필연적이다. 이후 슈바이처는 내내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낙관주의 대 염세주의, 일원론 대 이원론이 나온 후 또 다른 비교기준은 무엇인가? 윤리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슈바이처는 기독교가 “윤리적인 종교”인데 반해 다른 종교들은 이런저런 배경과 동기를 지닌 “논리적인 종교”라고 말한다. 낙관주의든, 염세주의적이든 다른 종교들은 말만 하나, 기독교는 행위한다. 이를 표현을 달리해 “정신의 종교”, “활동의 종교”로 나누기도 한다. 다른 종교들은 “정신의 종교”이며, 기독교는 “활동의 종교”다. 윤리적인 종교로써 기독교는 낙천과 염세 사이에 있으면서 그 양향을 긴장관계 싸안는 종교이고, 일원론과 이원론의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으면서도 현실 속에서 세계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를 변화시켜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내내한다. 슈바이처는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며, 그러한 식으로 “우월성”을 강조한다.

27페이지를 보라.

“여러분들은 많은 측면으로부터 기독교의 독창성이 의심받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 그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기독교의 이념들은 연대기적으로 그리스-로마 세계의 종교로부터 유래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구원을 동경하던 종교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유대교의 랍비인 예수를 이 ‘구원종교’의 선포자로 만들었던 하나의 전통이 나타났습니다.”

근대 이후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기독교의 독창성이 의문시 되었다. 그런데 28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물론, 기독교와 후기 그리스 종교 사이에는 분명한 유비가 있습니다. 이 양자 사이에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양자 모두 구원으로의 도달은 성례전적인 행위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연대기록 초기에는 구원에 대한 동경이, 그리스나 동방 혹은 이집트로부터 유래하여 신비적인 봉헌을 통해 인간에게 구원을 중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제의들(예배들)에서 만족을 찾았습니다. 이 제의들은 근래 비로소 연구되고 있으며 저물어 가는 고대인들의 정신적인 삶에 대한 탐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리스 엘레우시스의 신비종교들이, 소아시아로부터 아티스와 키벨레 숭배가 왔으며, 이집트로부터는 이시스와 세라피스 숭배가, 페르시아에서 미트라스 숭배가 유입되어 기독교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이러한 구원종교, 신비종교들로부터 추론해내는 시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타 “구원종교”, “신비종교”와 구별되게 기독교는 “윤리적”이다. 종교사적인 연구를 통해 기독교의 독창성이 의심받고 있지만, 기독교의 독창성은 다른아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실제로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로 가서 실천을 하기도 했다.

학생 : 그렇다면 슈바이처는 영성과 윤리를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려 했는데, 좋은 질문이다. 슈바이처가 논리 대 윤리, 언어 대 윤리, 정신 대 활동 이러한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방식 자체도 물음의 대상이고, 이렇게 분류한 후 우열을 나눌 수 있는지도 물음표에 던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와 견해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핵심, 종교의 핵심이 윤리에 있는지, 그렇다면 종교가 윤리로 환원되어도 좋다는 이야기인지, 이른바 세속윤리와 기독교윤리, 종교의 윤리와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슈바이처가 이야기하는 윤리는 영성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를 옹호할 수도 있고, 관점을 달리해 슈바이처를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이 질문을 던질 때는 아니다. 물음은 갖고 있으되 미리부터 판단하지는 말고 슈바이처의 논의를 따라가보도록 하자.

30페이지를 보라.

“후기 그리스 종교의 구원사상과 기독교의 구원사상 사이의 차이는,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상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반면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상에 집중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후기 그리스 종교는 ...인간과 세계의 운명에 관심을 쏟은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의 회복에만 관심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계의 변화에 대한 불타는 듯한 희망으로 살았습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변화된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시고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확증된 이

들은 그 나라에 받아들인다는 데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신의 회복”과 “인간과 세계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대비된다. 이런 식의 대비가 내내 이어진다. 전체적인 틀,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낙관주의 대 염세주의, 일원 대 이원의 대립항으로 나누고, 내용적에서는 논리 대 윤리, 정신 대 활동으로 나뉜다.

“정신의 회복”은 현실의 도피로 이어지지만 “기독교는 세계의 변혁을 희망”한다. “예수는, 예언자들처럼 그리고 또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언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짜라투스트라처럼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요청함과 동시에 세상 속에서의 행동도 요청”하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함”과 “세상 속의 행동”, 이와 관련된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이다. “자기를 버리고”에서 끝나면 현실 도피로 이어질 수 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이유로 현실로부터 은둔하는 경계장치가 “세상 속의 행동”이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는 것은 동어반복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자기를 버리고(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십자가를 지라(세상 안에서의 행동). 날마다 네 십자가를 계속지라고 예수는 말한다. 슈바이처가 보기에 이런 종교는 없다는 거다. 아닌게아니라 불교를 보면 애초에 소승불교는 탈속을 말했다. 물론 후에 대승불교가 등장해 마하야나로의 참여, 현실참여를 말했지만 이 마하사상이 등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불교의 내적 원리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중국의 도가 사상과의 만남 덕분이었다. 여러분은 도가라면 현실초월적인 분위기를 느끼지만, 도가는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적이다. 노자가 말하는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 무행이 아니라, 무위임을 염두해야 한다. 다만 노자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말하며, 그래서 낙관주의적 분위기를 보일 뿐이다(물론 이점에서 ‘생즉고’를 말하는, 비관주의적 색채를 띤 인도의 불교와는 다르다). 도가와와의 만남을 통해 불교는 대승화된다.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위 영혼구원과 전인구원, 개인구원과 세계구원등이 대립하고 있지만, 적어도 원론적으로 봤을 때 저 종교들과는 다르다. 현실적으로 보면 다 비슷하지 않냐는 비판에 대비해 슈바이처는 앞에 이런 말을 해 놓았다.

“상이한 종교들의 색다른 근본사상들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종교들의 이상을 살핍으로써 세계종교들을 가리고자 합니다. 각각의 종교들이 실제로 그 종교들의 이상에 어느 정도 뒤쳐져있는지는 고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현상으로서 기독교 역시 자신의 이상에 훨씬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 때문에 기독교는 예전에 행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자신의 이상에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좀 더 가보자. 논리 대 윤리의 대비구도를 넘어서, 윤리라는 범주를 다른 종교에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그 안에서 기독교와 타종교는 구별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예수가 인간의 윤리적 행위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사이의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결합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어떤 목적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한 기대 속에서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세계에서 그의 의지에 들어가기 위한 내적 필연성으로부터 윤리적이 되어야 한다는 데서 나타납니다.”

슈바이처가 말하는 윤리의 뜻이 여기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슈바이처가 말하는 윤리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현실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행동

이 아니며,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서의 윤리”가 아니다. 이 “합목적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밑의 문장을 보라.

“현대인으로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 사회의 상태를 합법적인 조직과 사랑의 활동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정의와 사랑을 결코 서로 조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러거든, 너는 사랑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리라””

합목적성은 정의와 사랑의 “조화”이다. 정의와 사랑의 관계는 기독교 안에서도 문제시되곤 한다. 정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슈바이처는 이 둘의 조화가 아닌 한 쪽을 말한다. 그가 보기에 다른 종교들이 윤리를 표방할 때는 저 둘의 조화를 말하지만, 기독교는 아니다. 윤리라는 범주를 공통적으로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정의와 사랑의 조화로서의 합목적적 윤리를 말한다. 그런데 예수의 윤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가 되는 윤리, 이를 목적으로 하는 윤리며 정의와 사랑을 조화시키기는 윤리보다는 사랑을 위한 의지적 행위로서의 윤리를 말한다. 여기서 “조화”와 “의지”가 대비된다. 정신의 통일을 위해서는 조화가 멋진 그림이다. 하나 안에서는 통일이 된다. 여기서 정신, 조화, 통일 다 같은 맥락에 있음을 염두하자. 하지만 기독교는 부조화, 긴장, 모순이다. 이에 대한 내용적인 표현이 “의지”다. 사랑을 향한, 사랑을 위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의지적 행위로서의 윤리다. 슈바이처가 보기에 균형적 조화는 이쁜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에 견주면 기독교는 쌍방적 균형, 조화가 아니라 하나를 택하고 이것을 밀어붙인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구도를 짜는 서론이다. 그리고서는 “세계종교들이란 어떤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후 본격적인 비교를 시작한다.

우선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라문교와 불교다. 어떻게 판정하고 있는가? 바라문교, 불교와 달리 기독교는 “우리를 그러한 자의식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겸허”로 이끈다. 슈바이처가 보기에 저 둘은 “자의식적 종교들”이며, 기독교는 이와 대비되는 “겸허, 겸손의 종교”이다. 또한 “불교와 바라문교는 본래 언어의 윤리지만, 행위의 윤리”는 아니다. 사랑이냐, 정의냐 한 쪽을 택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조화에만 신경을 쓰니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거다.

“브라만과 불교도는 지적 연민으로부터 연민의 '행위'로 이르지 못합니다.”

일말의 반성이 52페이지에 나온다.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종교는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포괄주의에 이르러서 비로소 가능해졌다. 적어도 다른 종교를 종교로 인정해야,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교를 통한 우열관계로. 종내는 기독교를 비교우위로 설정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말이다. 배타주의 유형에서 타종교는 고려가치가 없으

니, 비교를 할 필요조차 없다. 포괄주의 유형에서는 비교를 해야만 기독교의 가치가 드러나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논할 수 있게 된다. 53페이지에서 슈바이처가 말하고 있지 않는가.

“기독교는 참된 것이며 가장 가치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있는 것”, 최상급은 비교급의 특수한 형태이다. 비교없이 최상급은 나올 수 없다. 포괄주의자들 중에서도 슈바이처는 이 비교우위, 기독교의 우월성에 가장 주목하고, 또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가 트릴취에 가게되면 꽤 달라진다. 라너에 이르면 우월의 방식이 아주 세련되게 진행된다. 얼핏 들으면 우월의 뉘앙스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인도 종교를 이야기 하고서 슈바이처는 중국 이야기로 넘어간다. 왜 힌두교를 뒤로 뺐는가? 여타 종교들 중 힌두교는 기독교와 가장 유무상통에 있다고 슈바이처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만교, 불교와 같은 선상에서 힌두교를 볼 수 없다. 형이상학적으로만 보더라도 힌두교는 실체주의고, 브라만교는 실체부정이다. 세계관 자체가 공존불가할 정도로 다르다.

이어서 슈바이처는 중국 종교를 다루는데, 이 논의를 살피기 전에 잠시 종교간 관계유형을 상기해보자. 다른 종교, 제종교에 대해서 종교간 관계유형은 어떤 식으로 칭하고 있는가? 배타주의 유형에서 제종교는, ‘비기독교’이다. 포괄주의 유형은? ‘타종교’다. 그렇다면 다원주의 유형은? 물론 ‘타종교’를 붙일수도 있겠으나 논의상 ‘이웃종교’라 보는 것이 적절하다. 포괄주의 유형 안에 속한 슈바이처가 브라만교, 불교, 중국종교, 힌두교를 대하는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어떻게 다른가? 포괄주의 유형에서 기독교가 100점이면 어떤 종교는 80점이고, 어떤 종교는 20점이다. 80점짜리와 20점 짜리를 대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슈바이처는 각 종교를 놓고 몇 점을 주고 있는가? 브라만교, 불교, 중국종교에 몇 점을 매기고 있는가? 이 눈을 가지고 중국종교에 대한 슈바이처의 언급을 보라. 다음과 같은 문장이 눈에 띈다.

“중국의 경건한 이들은 사상누각을 지었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착각”이다.

“중국의 종교는 인도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먼 느낌이 듭니다. 중국의 종교는 통일적이고 자기 폐쇄적이며 논리적인 세계인식이 되려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자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세계의 의미를 추구하는 행동으로서 자연과 조화하는 윤리만을 내세웠으며 모든 열정적인 형태의 사랑의 윤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를 모범으로 본받는 가운데 현실을 고수하는 사상가들은 노자가 고정시킨 한계들을 고려하는 일 이외의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열정적인 형태의 사랑의 윤리”는 기독교에 해당함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조화하는 윤리”는 “폐쇄적이며 논리적인 세계인식”이 될 수 밖에 없다. “생기있고 윤리적인 종교”

는 “세계인식의 논리적인 결과”일 수 없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로부터, 계시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계시만 가지고 다할 수는 없다. 때문에 뒤에서 슈바이처는 이를 기독교의 과제로 남겨놓고, 동양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사유도 아울러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다. 슈바이처는 각 종교의 특징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종교들로부터 기독교가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묻고, 또 답해보라.

61페이지부터 힌두교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슈바이처의 톤이 달라진다. 슈바이처가 보기에 다른 동양 종교들과 견줄 때 기독교가 지닌 대비적인 특징을 힌두교 역시 어느 정도 개연성있게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교가 기독교만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힌두교는 윤리적 일신론이 되려 하는 노력을 자체 내에 지니고 있는 다신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진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힌두교는 다신론을 폐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다신론을 허용하기 때문에 힌두교는 기독교만 못하다. 헌데, 과연 그런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물을 일이다. 다신교는 과연 윤리적이진 않은가? 이걸 어디까지나 일신론의 입장에서 보기에 그런 것 아닌가? 초기 비교종교학에서 일신교가 다신교보다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한참 하기는 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를 개진한 이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들에게 있어 비교종교학은 기독교의 가치를 내세우기 위한 일종의 도구였다. 그들에게 일신론은 다신론보다 당연히 우월한 것이었고, 슈바이처는 저들의 연구를 취하데 저 배경까지 성찰하지는 않았다. 다신론으로부터 일원론으로의 전환을 일종의 ‘진화’로 보는 관점을 저 시기의 종교학자, 신학자들은 암묵적으로 공유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의 맥락에서는 물음표에 붙여진다. 다신론들이 이신과 저신 사이의 갈등을 불러오며, 이신과 저신을 모시는 이들의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신론의 열등함을 말하곤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일신론의 전환을 이룬 뒤에는 전쟁들이 덜 촉발되었는가? 오히려 다른 종교들을 처단의 대상으로 전쟁을 벌였고, 또 벌이고 있지 않는가? 현실은 덮어두고 논리적으로만 보더라도 다신론보다 유일신론이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는 다시 살필 일이다.

수업을 정리하자. 슈바이처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추리면 어떻게 되는가? “기독교는 다른종교와 비교하여 우월하다”가 될 것이다. ‘우월성’에 대한 강조는 포괄주의 유형 안에서도 슈바이처가 지닌 독특한 면모이다. ‘우월’을 말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를 제낄 수 없다. 때문에 제목이 ‘기독교와 세계종교’일 수 밖에 없다. 맥그라스가 단락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정한 것과 견주어 볼 때 그 뉘앙스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배타주의 유형, 복음주의에서 보편성 확보는 잠재적인 선에 머물러있다. 아직 역사 속에서 확보되지 않았으며, 역사의 종말에서 이루어낼 일이다. 이에 반해 슈바이처에서는 기독교의 우월성, 보편성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 현실이 아닌 각 종교들의 이상을 보고 논한다는 슈바이처의 전략도 여기서 나온다. 현실을 놓고 보면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개판이기 때문이다. 우월성은 이미 완성형태로 설정이 되었기에 ‘선형’이며, 이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보편’이다. 우월을 설정해야 하니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 윤리, 행위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 종교는 이렇게, 저 종교는 저렇게 ‘열등’하다. 비교의 방식이기는 하나, 비교를 통해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기준’은 ‘이

미' 설정되어 있다. 100점은 이미 설정되어 있고, 이 기준에 맞추어서 80점, 50점을 매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방식은 다른 종교의 '열등성'을 말하는 방식으로 기독교의 '우월성'을 말한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윤리 대 언어, 행위 대 논리를 나누고 있기는 하나 사실은 앞항은 뒤의 항을 다 포함하고 있다. 윤리의 그림, 행위의 그림은 이미 완성형태로 설정되어 있다. 이게 트뤼취에 이르면 조금 달라지고, 라너에 이르면 또 달라진다. 기독교라는 이름에 주목하는 슈바이처, 트뤼취와는 달리 라너는 '익명성'이라는 범주를 사용한다. 여기서 기독교라는 이름은 부차적이며, 때문에 아주 우아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월성은 포기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시 텍스트를 살피고 나름의 답을 찾기를 바라며, 또 뒤에 이어질 텍스트들을 살피기를 바란다. 오늘은 여기서 추리겠다.